

I. 서론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을 넘어섰다. 1990년 대 중후반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식량을 구하기 위한 목적의 탈북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2002년 이후에는 가족단위 탈북과 중국에서 거주하던 여성들의 국내입국이 증가하고 있다(최순미·강동완, 2017). 국내 입국은 물론 제3국에서 체류, 거주하는 탈북자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들 대부분은 중국에서 5년 이상 장기간 거주한 사례도 있다. 또한 남한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중국을 중간 경유지로 거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그동안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삶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문숙재·김지희 외, 2000; 김성경, 2012; 정정에·손영철 외, 2013). 그러나 이들 연구는 중국으로의 이동을 남한행을 향한 중간 기착지로 전제하거나, 중국에서의 생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들의 이주동기와 이주 과정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일부에서는 북한여성의 중국 이주에 대해 노동시장의 다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북한이 경제난으로 인해 이른바 먹고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북한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중국행을 선택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난과 정치적 억압으로 인한 맥락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국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연 이러한 행위를 노동의 이주로 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들의 이주동기와 삶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특히 왜 중국으로 가게 되었는지, 중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의 자발성 여부의 문제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탈북여성들이 북한을 나와 중국으로 향하는 사회적 맥락과 개인적 배경들을 소개하고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대해 밝힌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 및 조사방법을 밝힌다. 먼저 탈북여성들에 대한 연구의 흐름과 중국 내 거주하는 탈북여성들에 대한 기초 연구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본 연구가 중국 내 탈북여성 100명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기에, 대상자 100명에 대한 일반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북한 여성들이 북한을 나와 중국으로 가는 이주동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탈북여성이 중국으로 이주하게 된 동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 첫째, 말 그대로 북한을 떠난 이유이다. 탈북여성의 이주동기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이주동기의 불가피성 문제, 즉,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적, 상황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탈북여성의 중국 이주 과정에서의 ‘자발성’ 여부에 대한 논의이다. 자발성 여부의 문제는 중국 내 탈북여성의 정체성 및 국내에서 그녀들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만약 그녀들이 노동이동의 목적에 따라 자발성에 기인하여 중국에 온 것으로 규정한다면, 북한인권 문제를 비롯해 국내에서 그녀들에 대한 정착지원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탈북에 대한 자발성, 중국행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는지의 문제, 결혼 및 돈벌이 관련 사안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식을 본인 스스로 선택하였는지 또는 강제성이 동원되었는지 등에 대한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II.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1. 선행연구

중국 내 탈북여성에 대한 연구 중 탈북동기를 살펴본 첫 연구로는 문숙재 외(2000)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연변지역으로 탈북한 여성을 대상으로 탈북동기와 현지 생활실태를 조사했다. 당시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이후 탈북이 급증하면서 중국 내 탈북여성들의 생활실태를 다룬 초창기 연구로서 탈북동기 및 현지 생활실태를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김태현 외(2003) 중국 내 탈북여성 13명을 현지에서 심층면접 방식을 통해 생활실태와 의미에 대해 분석했다. 이 연구는 탈북의 배경부터 중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현지에서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 연구다. 강차연(2004) 역시 중국 내 동북3성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탈북동기와 현지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탈북여성들의 중국 내 인신매매와 성희롱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두었다. 최근 연구로 김화순(2017)은 ‘노동이동’이 탈북현상의 중요원인 중 하나로 가정하고 탈북이주현상을 국제이주이론에 비추어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에서 노동이동 경험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적 태도나 자신감을 형성함으로써 탈북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입국 탈북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남한 생활에 대한 정착과정과 탈북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북한사회의 변화로 인해 탈북동기가 단순히 배고픔에서 ‘더 나은 삶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지면서 이들의 탈북동기를 다양한 관점

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들의 탈북동기에 대한 분석은 남한에서의 정착과정에서 그들을 대하는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중국 내 거주하는 탈북여성의 이주동기 중 자발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만약 그녀들의 이주가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전지구적 현상의 일환이며, 그들의 이주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면 인권 차원에서 논의할 정당성은 미약하다. 하지만 그들의 이주동기가 북한 내부의 환경적 요인과 결합하여 비자발적 요인에 따른 강제성과 인신매매의 성격이 강하다면 인식과 정책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탈북여성의 중국으로의 이주가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한 강제성으로 인한 결과이며 이러한 요인에 의해 탈북여성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사방법 및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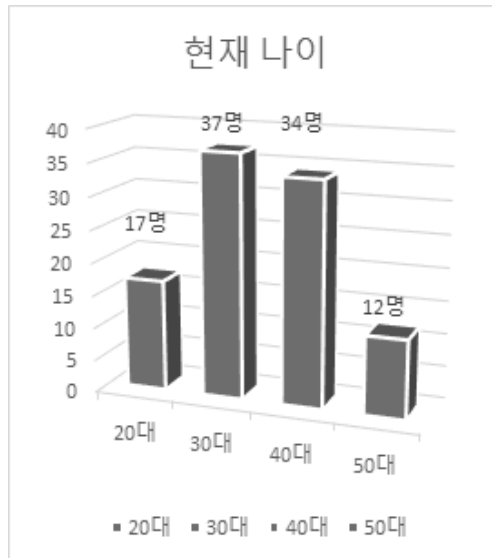
본 연구는 중국 현지에서 거주하는 탈북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본 조사는 질문 문항의 적절성과 양호도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2016년 8월 국내 거주중인 여성 탈북민 중 중국거주 경험자 3명을 대상으로 사전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지 상황에 대한 적절성을 수정하여 2016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00명의 대상자를 직접 면접조사했다.¹⁾

1) 조사내용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강동완, “중국 현지 거주 탈북여성의 생활 실태 및 지원 방안,” 『북한학보』 제42권 1호(2017) 참조.

1) 연령대 및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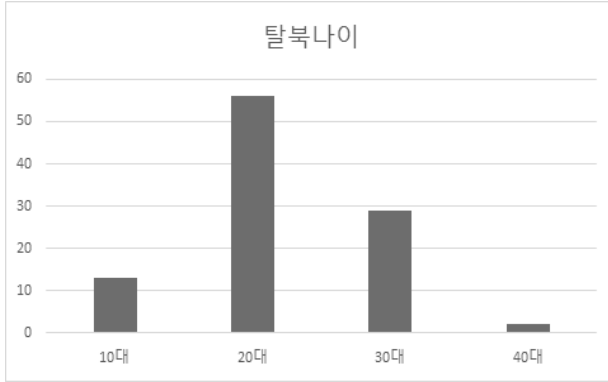
이 글에서 살펴본 대상자의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다. 100명 가운데 20대 17명, 30대 37명, 40대 34명, 50대 12명 순이었다. 30-40대가 각각 37명과 34명으로 전체 100명 가운데 71%를 차지했다.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1960년대 19명, 1970년대 36명, 1980년대 34명, 1990년대 11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면접 대상자 현재 연령대



현재 나이가 아닌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 할 당시 연령대를 살펴보면 10대 13명, 20대 57명, 30대 28명, 40대 2명으로 나타났다. 탈북 당시의 나이는 20대가 57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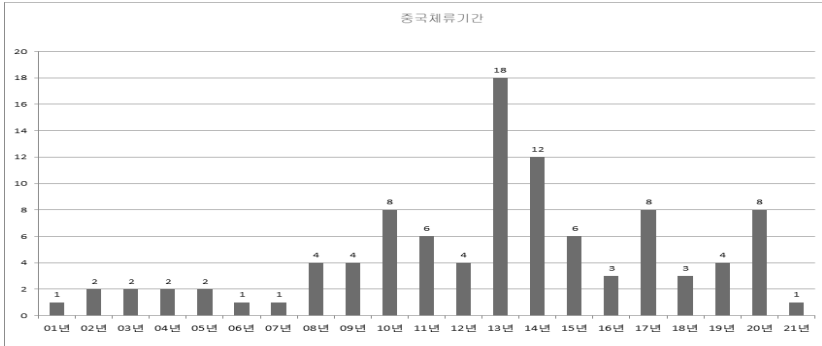
<그림 2> 면접 대상자 탈북 당시 연령대



2) 중국 거주 기간 및 탈북년도

탈북여성들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은 어떠할까? 5년 이내는 9명, 6년부터 10년 이내는 18명, 15년 이내는 46명, 20년 이내는 26명, 20년 초과는 1명 순이었다. 이번 연구의 대상은 단순 체류가 아닌 이주를 통해 실제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이기 때문에 1년부터 길게는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림 3> 면접 대상자 중국 체류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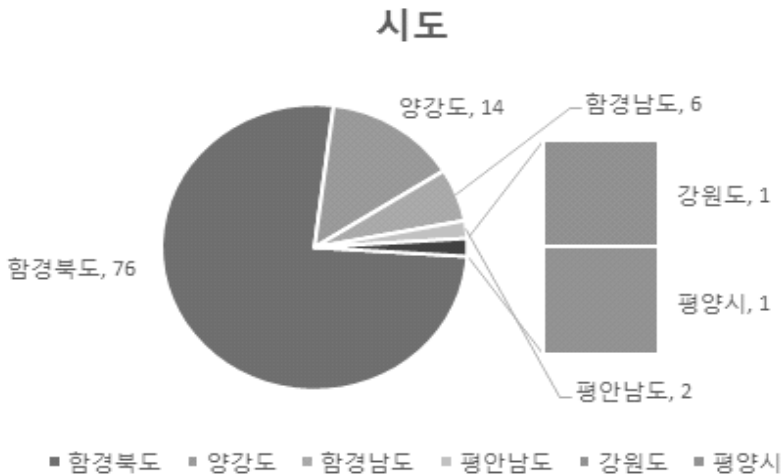
탈북여성들이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온 탈북연도는 언제일까? 본 연구대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례는 1996년에 탈북한 여성이다. 전체적으로 1990년대 탈북한 여성이 16명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을 겪던 때다. 이후 5년 단위로 구분할 때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0명,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3명, 2011년부터 2016년까지가 11명 순으로 나타났다. 탈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시기는 2003년과 2004년으로 각각 12명과 18명이었으며 2011년 이후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는 매년 2명 정도로 나타났다.

3) 출신지역

북한에서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함경북도 76명, 양강도 14명, 함경남도 6명, 평안남도 2명, 강원도 1명, 평양시 1명 순이었다. 출신지역과 관련하여 함경도 회령시와 청진시, 양강도 혜산시 출신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입국 탈북민의 북한 출

신지역과 동일한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 입국 탈북민의 지역 출신지 역시 2016년까지 통계를 보면 함경북도 지역이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양강도 지역이 16.7%로 조사되었다.²⁾

<그림 4> 면접 대상자 출신 지역



Ⅲ. 탈북여성의 중국으로 탈북 동기 및 요인

북한여성들은 정치적 이유, 경제적 필요, 먼저 떠난 가족을 만나기 위한 이주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간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탈북 요인은 내생적 요인(endogenous factors)과 외생적 요인(exogenous factors)으로

2)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지역 출신지에 관한 통계자료는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서울: 남북하나재단, 2016) 참조.

나누어 볼 수 있다. 내생적 요인은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 수용소, 교화소와 같은 처벌에 대한 우려, 남한 영화나 중국 드라마와 같이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 등을 포함하는 정치적 요인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가연, 2013: 51).

이 글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오게 되면 거의 브로커에 의한 인신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국까지 오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결정 여부가 중요한 요인이다. 자발적 선택인가 아니면 회유 및 강제납치의 여부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비자발적 상황은 강제유인 납치와 주변인의 회유로 구분한다. 주변인의 회유는 돈을 벌거나 먹을 것을 찾아 중국에 갔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중국행을 결정한 경우다. 비록 본인이 중국에 간다고 선택한 결과이지만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비정상적 결혼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거나, 국경을 건너와서 다시 돌아가려 했을 때 이미 브로커의 강제에 의해 자발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상황으로 규정한다. 자발과 비자발적 상황의 차이는 중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중국에서 강제로 결혼을 해야 하는 인신매매 상황과 북한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여부를 인지했느냐가 중요한 구분 기준이다. 또한 자발적 선택이라 하더라도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상황적, 환경적 요인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표 1> 선택 여부에 따른 탈북요인

구분	이유		사례번호	명
비자발적 상황	강제 유인 납치	중국 왔다가 강제 납치(친지방문, 장사)	5, 10, 31	3명
		북한에서 강제 납치	40, 45, 74	3명
	주변인의 회유	배고픔 때문에	2, 4, 7, 20, 21, 22, 23, 24, 32, 60, 66, 70, 86, 100	14명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1, 3, 6, 11, 12, 16, 17, 18, 26, 28, 30, 33, 34, 35, 36, 37, 38, 42, 46, 49, 50, 51, 52, 54, 55, 56, 57, 58, 59, 61, 63, 67, 68, 69, 73, 77, 78, 79, 82, 83, 84, 85, 88, 89, 91, 92, 93, 94, 95, 96, 97, 99	54명
		빚을 갚기 위해	13, 39, 53	3명
	합계			
자발적 상황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해서	14, 15	2명

	밀수 하러 중국에 잠시 나왔다가	44, 90	2명
	브로커 잡는 임무를 받고	9	1명
	단련대에 가게 되어 도망쳐 나온 길	64, 65, 71, 87	4명
	장사하다 망해서	8	1명
	중국 가서 결혼을 목적으로	19, 29, 43, 48, 62, 72, 75, 76, 80, 81, 98	11명
	엄마가 함께 가자고 해서	27, 47	2명
	합계		23명

1. 비자발적 상황

비자발적 상황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군가에게 강제 유인 납치 되었거나, 주변인의 회유에 의해 중국으로 온 경우를 말한다. 강제유인납치는 북한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으며, 중국에 친지방문이나 장사를 위해 잠시 접경지역에 나왔다가 당한 사례도 있었다. 강제 유인 납치의 경우 북한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도 있었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와 영문도 모른 채 어느 날 지옥과 같은 생이별을 한 것이다.

1) 강제유인 납치: 중국 친지 방문을 목적으로 중국에 온 경우

사례 5, 10, 31은 중국에 왔다 유인 납치 된 사례다. 사례 5는 30살 때 장사를 목적으로 중국에 잠시 넘어왔다가 유인 납치되었다. 그녀는 당시 북한에서 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고난의 행군 때 굶주림으로 인해 자녀 중 한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가족들이 모두 셋별탄광에서 일했다는 사례 5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너무 배고픈 날들을 보냈다. 두부장사를 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간 그녀는 장사를 하며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다녀서 키가 안 컸다고 말한다. 뜨거운 두부를 머리에 이고 다니다 보니 그 때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지금 이렇게 볼 품 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례 5였다. 배고픔에 너무 힘들어 중국에 잠깐 왔다가 도매꾼이라 불리는 사람에게 속아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경우다.

고난의 행군 때 너무 곤란하다 나니까, 조선에서 시집 갔었는데 아이가 한 명 죽고, 부모들도 다 먹을 게 없어 사망했어요. 감자 녹말 장사를 했어요. 배낭에메고 다니면서... 대흥단에서 장사하다 거기에서 중국으로 들어왔어요. 도매꾼이라는 사람이 자기 따라 가면 돈벌이 잘 된다 해서...(사례 5)

사례 10은 북한에서 보위지도원에게 뇌물을 주고 친지방문 목적으로 중국에 잠시 왔다가 유인 납치된 사례다. 그녀는 가슴에 묻은 한 맺힌 사연을 자꾸 꺼내면 뭐하냐며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에 주저했다. 지나온 날들에 대해 더 이상 들추기 싫다고 말했다. 중국에 온지 17년이 되는 그녀는 1999년 39살 나이에 중국에 친지 방문을 나왔다. 중국까지 나오는 길도 쉽

지는 않았다. 배고픔으로 너무 어려웠던 시기에 중국에 있는 친척 방문을 가서 무엇이든 구해 오자고 생각했다. 보안원에게 변변치 않지만 뇌물을 주고 겨우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그가 보안원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중국에 친지를 찾았던 이유는 말 그대로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어느 날, 장사를 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중국에 있는 친지에게 좀 도움을 받자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고 한다. 그 전에도 화룡에 있는 친척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삼합에 있는 다른 친척에게 도움을 받아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길이 결국 지금까지 돌아가지 못하는 선택의 순간이 되어 버렸다. 왜 그녀는 다시 돌아가지 못했을까?

내가 그 때 그냥 장사를 해도 됐는데 왜 중국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용정, 삼합에 친척이 있으니까 회령을 통해 나왔어요. 그 때 한 50 정도 넘는 할마이가 길을 가르쳐 준다고 저보고 가자합니다. 할마이가 버스에 앉았는데 나보고 물어보더라 말입니다. ‘어디로 가나’ 하길래 주소를 가르쳐 줬다 말입니다. 그랬더니 자꾸 “내 잘 아는 동네요 잘 아는 동네인데 내 따라가면 알려 주겠다” 하더라 말입니다. 중국에 와서 겁이 났지만 나이 많은 엄마뻘이니까 아예 다른 생각은 못하고 따라갔어요. 차를 태워준다고 해서 갔는데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사례 10).

사례 31도 17년 전, 29살 때 중국에 왔다. 연변에 잠시 왔다가 상해까지 팔려가서 지금 생활 하는 곳으로 오게 되었다. 그녀는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 공안에 체포되어 북한 보위부에 보름 정도 있다가 안전부로 이관되었다. 그런데 2008년에 한번 잡혀 나

갔을 때 김정일의 특별지시로 때리지도 말고 돈도 빼앗지도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교화소를 나온 사례 31은 그 길로 다시 중국으로 도망쳤다. 중국에 와서 돈을 벌어 다시 돌아가겠다는 꿈은 브로커의 손에 잡히면서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꿈이 되어 버렸다.

한편, 중국이 아닌 북한에서부터 강제 유인 납치된 경우도 있다. 사례 40, 45, 74는 북한 내에서 강제 유인 납치된 사례다. 사례 40을 중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현란한 솜씨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웃음기 가득한 해맑은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던 사례 40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그녀는 도대체 왜 중국까지 오게 되었을까?

사례 40의 고향은 함흥시로 대극장 바로 옆에 집이 있었다.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중국으로 납치된 그녀는 북한에 있을 때 가족신발을 만드는 아버지를 도와주는 착한 딸이었다. 고난의 행군 시절 세 아들이 모두 굶어죽을 상황이 되자 아버지는 자재를 사서 집에서 가족신발을 만들어 팔았다고 한다. 그러나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도 없었다. 보안원이 자꾸만 집에 찾아와서 뇌물을 요구했다.

비사그루빠가 돌아다녔어요. 경찰들이 자꾸 집에 오는데 고이는 것도 한 두 번이어야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리막 길이었어요. 나오기 전까지는 생활이 바쁘다나니까... 그 때 당시에는 선전대에 적만 걸어놓고 다니지 않고 봉 떠 있는 상태였지요. 신발 관련 전문학교도 졸업했는데...(사례 40).

신발관련 전문학교도 졸업하고 잘 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를

도와 그럭저럭 먹고는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동무에게 한 남자를 소개 받게 된다. 그 남자로 인해 사례 40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바뀌게 된다. 함흥은 국경연선과 거리상으로 멀어 중국에 사람을 판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

무산에 가서 광산에 가면 돈 번다는 말에 그냥 따라 나선 거지요. 아버지 엄마 몰래 나왔다가 큰 돈 벌어서 드릴 환상에 나온건데... 강 건넌 때도 겨울이니까 얼음타고 건널 때도 중국인지 몰랐어요. 국경과 먼 지역에 살았으니까 그게 국경연선인지도 몰랐지요. 눈 떠도 캄캄하고 안 떠도 캄캄하고... 몇 날 며칠을 밥도 못 먹고 쓰러져 있었어요. 말도 못하니까 글도 쓰고 했는데 아무 소용없었지요. 이미 팔렸는데...

함흥에서 무산광산까지 가게 된 건 순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말 때문이었다. 다른 사례자가 중국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았다면 사례 40은 함흥에서 무산까지 간 정도였다. 강을 하나 건넜는데 그 길이 중국으로 가는 길인지는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 자신이 강을 건너는 순간, 돈을 받고 사라진 남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음 한켠에 분노로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 10여년의 세월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다.

협잡(사기)당해서 왔어요. 와서 중국인 줄도 몰랐어요. 동무의 동무를 통해 안 남자인데... 그 아이가 생긴 것도 잘 생겼고, 아버지가 책임비서여서 설마 나를 팔아먹을까 생각했는데 날 팔아먹었지. 방학 때 나를 팔아 먹은거예요. 함흥은 국경연선과 멀었기 때문에 사람을 중국에 판다는 건 꿈

에도 생각 못했어요. 무산에 가면 금 캐는 광산이 있는데 젊었으니까.. 그 때는 제일 좋은 나이니까.. 가서 일만 하면 생각지도 않은 돈을 준다. 돌아와서 아버지와 엄마 기쁘게 해 준다는 생각에 갔지요. 강을 건너는게 그제 중국인지도 몰랐어요. 강을 건너자마자 그 사람은 돈 먹고 그냥 달아나고... 이 만 원에 팔렸어요(사례 40).

사례 45 역시 북한에서 납치된 경우다. 사례 45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사례 45가 18살의 나이로 고등중학교를 다닐 때의 일이다.

학교 다닐 때 술집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일요일에 술집 갔다가 술을 마셨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요. 학교 동무 3명이랑 같이 동네에 있는 술 먹으러 갔어요. 학교 안가고 술집에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여기는 중국이라 합디다. 셋 다 같이... 조선말은 하는데 여기는 중국이고, 조선과 중국 사이에 두만강 있는데 두만강을 건너왔으니 갈 수 없다 말합디다. 우리 세 명을 데리고 기차 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11살 차이나는 남편을 만났어요. 조선에서 팔려간다는 말은 생각도 못했어요. 실감이 안되었어요. 그 사람이 밤에 나 어떻게 할려고 하면 내가 칼 쥐고 막 휘두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살자하고 포기했어요(사례 45).

2) 주변인의 회유: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

100명의 대상자 가운데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픔 때문에 중국에

왔다는 응답자는 14명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까지 이른바 고난의 행군기로 불리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여성들은 극단의 길로 내몰렸다. 당장 한 끼의 식사를 걱정하며 죽어가는 가족들을 살려야 했다. 중국에 가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가족들도 살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중국에 시집가면 잘 살 수 있고 가족들도 지원해줄 수 있다”고 북한 여성들을 유혹하는 말에 속아 자발적으로 중국으로 탈북하거나, 장사나 취업을 하기 위해 또는 병을 고치기 위해 탈북했으나 후에 인신매매를 당한 것을 깨닫게 된다(이기영·김민경, 2015: 221).

그녀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주변인의 권유와 회유에 의해 중국에 건너온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2는 굶주림에 한 끼 밥이라도 배불리 먹으려고 강을 건넌 사례다. 20살 때 고난의 행군 때 압록강 건너서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왔다. 먹을 게 없어 배고픔에 넘은 강은 한 끼의 따뜻한 밥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은 그 강을 건너서 가지 못했다. 당시 배고픔 때문에 강을 건넌 북한 사람들이 중국 국경마을에서 도둑질을 많이 해서 중국 공안들의 감시와 체포가 심했다고 한다. 사례 2도 결국 길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복송된다.

스무 살 때 되었을 때인가 그 때 너무 힘드니까 밥이라도 얻어먹자고 압록강 건너왔죠. 왔는데 중국에서 북한사람들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조선 사람을 싫어했어요. 길에 조선 아이들이 많아서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시내 는 못가고 산길로만 정신없이 돌아다녔는데 가길에서 공안차가 와서 잡혔습니다. 북한사람인거 단번에 아니까...(사례 2).

배고픔에 강을 건넜지만 중국 공안에 잡혀 복송되는 신세가 되었다. 집결소 구류중에 소식을 알고 달려온 오빠가 담보를 서고 한 달 만에 겨우 풀려 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번 중국에 다녀온 사례 2가 북한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다. 무엇보다 중국에 가면 허기진 배는 달랠 수 있었다. 이래저래 죽는 건 마찬가지라 생각한 사례 2는 다시 압록강을 건넌다. 두 번째 강을 건넌 지역은 중국의 장백지역이다. 이곳은 백두산(중국의 장백산)이 있는 곳으로 지금도 접경지역의 북한주민들이 관광이 시작되는 여름 한철이면 장백지역에 와서 일을 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증언이 있을 만큼 가까운 곳이다. 사례 2는 장백지역으로 와서 백두산 관광을 온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 사람으로부터 교회를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무조건 십자가가 그려진 곳을 찾아 나섰다.

한편,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오게 된 사례는 54명이었다. 굶주림과 배고픔에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중국 가서 몇 달만 고생하고 다시 오면 된다는 말은 그녀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다. 비록 그녀들 스스로 중국행을 결정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삶이라 해도 결코 그것이 그녀들의 선택적 삶이라 말해서는 안 된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웃이, 친구가, 심지어 친척들이 건네준 중국행의 유혹은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표 2> 주변인의 회유로 중국에 간 사례자 번호

구 분	사례번호	명
중국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1, 3, 6, 11, 12, 16, 17, 18, 26, 28, 30, 33, 34, 35, 36, 37, 38, 42, 46, 49, 50, 51, 52, 54, 55, 56, 57, 58, 59, 61, 63, 67, 68, 69, 73, 77, 78, 79, 82, 83, 84, 85, 88, 89, 91, 92, 93, 94, 95, 96, 97, 99	54명

3) 그녀들을 회유하는 사람들

이번 조사를 통해 탈북여성들을 중국에 이르게 한 권유 또는 회유자는 학교 동창생(사례 3, 77, 93, 99), 직장동료(사례 11), 돈을 빌려준 친구(사례 12), 친구 오빠(사례 16), 이웃집 친구(사례 17, 18, 26, 42, 46, 97), 브로커(사례 28, 34, 35, 36, 37, 67), 친척(사례 33), 직장후배(사례 51), 동네 이웃(사례 57, 69, 82 85), 밀수꾼(사례 58, 94), 이웃집 언니(사례 88, 91, 92) 등이었다.

중국으로 사람을 팔아넘긴다는 브로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례는 6명이었다. 평소 중국과 밀수를 통해 장사를 하던 사람 2명을 포함하면 54명 가운데 8명 정도만이 모르던 사람이었고, 나머지 46명은 평소에도 알고 지내던 친한 사이였다. 동창생 3명,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교원 3명, 같은 기업소에 다니며 언니동생 하던 사이 등 평소에 친분을 갖고 지내던 사람들이 운명의 길에 함께 들어선 사례도 많았다.

사례 1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다. 7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된 엄마와 언니랑 함께 살면서 가난했지만 가족이 있어 행복한 날들이었다. 그녀가 중국에 넘어 온 시기는 2006년이지만 이미 1998년에 연변 쪽에 몰래 갔다온 경험이 있었다. 중국을 경험한 그녀로서는 언젠가는 다시 한 번 중국에 와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다. 하지만 남의 손에 팔려 와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곳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중국 국경과 가까운 곳에 살았던 사례 1은 연변지역에 와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도 했다. 그 때 본 남한의 경제적 발전상은 그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제가 살던 함북도가 국경하고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 때 당시 중국을 몰래 도망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제가 2006년도에 거길 나왔지만 이전에 1998년도 연변 쪽에 몰래 갔다고 온 경험도 있어요. 그러면서리 연변에 와서 한국 드라마를 좀 봤었고, 그 때 나이에는 호기심이 강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사례 1).

중국에서 경험한 남한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남한까지는 아니더라도 배꼽지 않는 중국에서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는 했다. 호기심 많은 이십대 청년의 생각으로 중국은 돈을 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의 땅이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엄마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희 어머니가 당시 혼자였는데 저를 많이 의지했거든요. 앉으라하면 앉고 서라면 서는 그런 고지식한 분이었는데 저한테 많이 의지한 거 같아요. 제가 중국으로 들어가서 살겠다 말만하면 펄쩍 뛰었거든요. 못 간다고 너가 없으면 못산

다고 이 정도였거든요. 제가 그걸 많이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으로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한편에는 내 엄마가 나를 많이 의지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때는 못 뛰었지요(사례 1),

어머니의 반대로 인해 중국에 가는 것은 포기했다. 홀로된 엄마를 두고 중국에 간다고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사례 1이 중국까지 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사랑하는 언니가 병을 앓았기 때문이다. 홀어머니와 함께 병든 언니를 간호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중국에 가서 돈 벌어 돌아오면 병든 언니를 치료해 줄 수 있고 예전처럼 다시 행복한 가족으로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매일같이 간에 복수가 차 힘겨워 하는 언니를 보면서 중국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옆집 사람의 말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우리 언니가 병을 앓았거든요. 조선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가정에서 모든 일 다하다보니까 돈벌이 다하고 살잖아요. 저희 언니가 시부모님들도 모시고 아이 둘이 있고 식구가 많으니까 어려웠어요. 식사를 바로 못해서 간복수가 왔거든요. 그래서 언니 아니래도 이래 살다보면 힘들고 해서... 그 때 당시는 언니로 인해서 여길 왔거든요. 옆집 사람이 중국 가면 돈 많이 벌수 있다고 해서... 여기 와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저 돈 벌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계획하고 왔거든요. 근데 오다보니 너무 멀리 왔어요.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는 길로...(사례 1).

사례 3은 17년 전 서른의 나이에 중국에 왔다. 북한에 있을 때

는 외동딸로 살면서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 장사하는 엄마 곁에서 사례 3은 직장을 다니며 넉넉하지는 않지만 밥을 굶을 정도는 아니었다. 시집을 갈 때까지만 해도 그의 생애 어떠한 불행이 닥쳐올 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남편은 인텔리 가정에서 태어나 걸은 번듯하게 보였다. 그러나 장사를 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다는 당시 상황에는 잘 맞지 않는 인물이었다. 월급이나 배급이 끊긴 시기에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건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불행의 시작이었을까? 시집간 딸 자식 걱정해 장사를 하며 번 돈을 몰래 손에 쥐어지던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든든히 의지하며 믿고 살던 남편도 임신 한 달 만에 사망한다.

중국에 온지 십칠 년이에요. 조선에서는 외동딸로 살며 어머니가 장사 하다보니까 좀 살았어요. 나는 직장 생활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크게 어려움 없었지요. 근데 시집 오니 이게 인텔리 가정이 됐어요. 인텔리 가정이다보니까 장사 할 줄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가 장사하면서 병원에서 뇌출혈 왔어요. 뇌출혈 와서 일 년 못 건너서 돌아가셨지요. 어머니가 사망해도 든든한 세대주가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사례 3).

외동딸로 자라며 귀여움을 받던 사례 3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인해 어려움은 겪었지만 그래도 세대주가 있어 마음이 든든했다.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남편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러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섰다.

세대주가 사망하면서 먹을 게 없고 장사를 해야 되지 두루 두루 고심하던 그 때 일이 잘 안됐어요. 그 때 내가 절반 죽었습니다. 얼굴도 반쪽이 되고 새까매져 형편없었어요. 그렇게 고심하던 끝에 저기 학교 동창생 내보고 어디 돈 벌러 가겠는가? 고생하지 말라고, 돈 벌러 어딘가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청진인데 이쪽 연변지역은 잘 몰라요. 난 중국이라는거 도강했다는 소리는 들어도 중국 간다는 소리는 꿈에도 못 꿰봤어요. 근데 탁 이런 말을 하니깐 그 때도 아예 안간다 이랬는데 정말 딱 그런 모퉁이에 끼이니깐 가야되겠다 하는 생각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탁 듭니다(사례 3).

사례 3에게 중국에 돈 벌러 가자고 제안을 한 것은 학교 동창생이었다. 어머니와 남편이 연이어 사망하고 날이 갈수록 먹고사는 게 어려워졌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창생이 중국에 가서 돈 벌고 돌아오자는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청진에 살던 사례 3은 중국에 도강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실제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 평소 단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중국 생활이었지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 길을 선택했다. 돌아오지 못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러나 강을 건너는 순간, 지금까지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되어버렸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쨌든 제가 시집은 잘 만났어요. 잘 못 살아도 마음이 얼마나 고운지... 우리 세대주가 22살이잖아요. 우리 세대주가 이렇게 이쪽인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무슨 도매꾼들하고 탁 내렸는데 사람들이 쫓 서 있어요. 얼굴을 어디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그 때는 막 무서우니까 중국땅에 발을 디뎠는데 내 몸을 어쨌든 피신해야 되니까. 내가 안전한

곳으로 쉬어야 되니까 그저 보지도 않고 들어왔어요(사례 3).

4) 인신매매를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온 사례

저마다 사연은 모두 다르지만 한가지 분명한 건 중국에 건너와서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는 사실을 모르고 나왔다는 점이다. 사례 26은 북한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다. 중국에 가서 3년만 돈 벌고 돌아오기로 한 길이었다.

꿈도 못 꿰지. 여기 와서 결혼한다는 건 생각도 못 하고 여기 와서 마음을 좀 안착시키고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중국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고 있니까. 내 조선에 아이를 하나 버리고 와서 중국에 또 아이를 버리고 달아나면 그게 사람이에요? 한 인간인데 내가 낳은 자식을 그렇게 떠나왔으니까 버리고 온 거나 같지 않아요? 어쨌든. 내가 이제 이 아이를 또 버리고 가면 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도 없어요. 내 아무리 사람이라 해도 사람의 사명을 잃고 살면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사례 26).

사례 33도 북한에 두고 온 딸이 있었다. 중국에 온 지 10년차가 되어가니 13살에 북한에 두고 온 딸은 이제 23살이 되었다고 말한다.

아이들 품에 올 때에 연변에 살 생각 안했지. 돈 좀 벌고 3년 뒤에 돌아오지 이랬지 남편죽고 없고 둘째 동생한테 아이를 맡기고 왔죠. 살기힘드니까 왔지. 그 거지같은 나라에

서 어떻게 살아요. 배 졸졸 끓는데 아침부터 일하랴 가면 갈구지 욱떡지 막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중국 잘 산다고 오긴 왔는데 그때 같이 일하는 아줌마 있었어요. 이틀 만에 생각지 않게 왔어요(사례 33)

사례 82는 지금 41살로 중국에 온 지 20년이 다 되어간다. 1998년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가장 힘든 시기에 중국에 건너온 사례다. 22살 때 돈벌러 중국에 왔다. 함경남도 고원이 고향이었던 그녀는 국경과 멀었기 때문에 중국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길에서 만난 또래의 아이가 사준 국수 한 그릇이 20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중국에 와서 18살 딸과 13살 아들을 두었다. 20년의 세월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길에서 만난 또래 애가 이쪽 편에 가면 돈을 얼마든지 번다고 그래요. 거기가 중국인지 뭐 어딘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말하더라 말입니다. 낮에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저녁에 나를 밥 한 그릇 사주더라 말입니다, 국수. 국수 먹고 그 애가 나 데리고 물 건너더라 말이지. 물 건너고 쳐다보니까 말이 다르지, 조선하고 또 밤에 불도 다르지. 조선에는 밤에 불이 빨갛고 노랗고 이런 반짝반짝 그러지 않는데 이쪽엔 반짝반짝 하드라고. 여기 중국인가? 물어보니까 중국이 맞다 그래. 그 다음에 후회해도 오지 못한단 말입니다(사례 82).

2. 자발적 선택

전체 100명 가운데 23명은 중국으로 가면 인신매매를 통해 결

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불법적인 결혼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들은 강을 건넜을까? 북한에서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해서, 밀수하러 중국에 나왔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인신매매 브로커를 잡은 임무를 받고, 단련대에 가게 도망쳐 나온 길,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엄마가 가는 길에 함께 나온 사례 등 그 이유는 다양했다. 자발적 선택 23명 가운데 12명은 중국에 가면 결혼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팔려간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한다. 11명은 중국에서 결혼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주한 사례다. 그러나 그녀들 역시 결혼 이주 여성으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1) 밀수하러 중국에 잠시 나왔다가

사례 44와 43은 사촌지간이다. 사례 43은 북한에 있을 때 기업소에 출근을 안 해서 단련대에 잡혀갈 상황이 되자 중국으로 도망쳐 온 경우다. 중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신랑이 그나마 돈벌이가 괜찮아서 집도 새로 짓고 어느 정도 살만큼은 되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전화 한통을 받는다. 바로 혜산과 중국 장백을 오가며 밀수를 하던 사촌동생인 사례 44의 다급한 전화였다. 사례 44는 혜산에서 장백으로 밀수를 다니며 돈을 벌었다. 가족들을 배불리 먹일 만큼 벌이가 좋았다. 큰 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낸 게 화근이 되었다. 그 날도 장백에 밀수를 하러 왔는데 거래하는 선으로부터 지금 북한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다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길은 미리 중국에 와서 살고 있던 사촌인 사례 43밖에 없었다.

보위부 스파이가 없다지만 저쪽에는 스파이 많잖아요. 조선 여자가 없으면 공안에 가서 말하니까. 사촌이 장백까지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서부터 왔지요. 조선여자 데리고 오니까 브로커가 돈 많이 달라고 합디다. 내가 못주고 사촌이 다 해 준 거지요. 팔려온 게 아니니까 신랑으로부터 지참금을 받았어요. 6만 위엔을 받아서 절반을 조선에 보내줬어요(사례 44).

사례90은 밀수를 하던 부모님이 잡혀가고 혼자 남게 되어 중국에 온 경우다. 중국으로 밀수를 하며 헤산에서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고 말하는 그녀는 부모님이 교화소에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다. 20살 때 고향을 떠나 7년 동안 중국에서 살면서 두 번을 팔려 다녔다. 20살 때 처음 팔려간 남편의 나이는 50살이었다. 자신의 엄마와 똑같은 나이의 남자를 남편으로 알고 팔려갔다.

오기 전에는 생활이 헤산에서 괜찮았는데 오면서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으면서 구류장에 가게 되면서 어려웠어요. 돈도 없지 내 부모도 없지.. 그런데 친척들이 중국 가면 돈을 잘 번다고 해서 그 말에 여기 왔지(사례 90).

2) 단련대에 가게 되어 도망쳐 나온 길

사례 87에게는 중국으로 도망 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24살의 나이에 두만강 건너 도망을 친 건 순전히 단련대에 잡혀 가는 그 죽음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였다. 올해 38살의 나이로 중국에 온지 14년이 되어가지만 그 날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회령에서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노동자로

일하던 그녀는 하루하루 견디기가 너무도 힘이 들었다. 공장에 나가 봐야 배급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먹고 살아야하기에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작업반장이 찾아와 공장에 출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렸다.

사람들이 말하는 게 중국에 가면 일도하고 아이 뭐야 좋다면서,, 내 가보지 못해서 무서워는 했는데 어쨌든 살기 바쁘니까요. 직장에 못나가고 그냥 장마당에 나갔지 그런데 직장에서 일을 안 한다고 때리기도 하고 그 직장 반장이...(사례 87).

사례 87은 자신이 직장에 나가지 않아서 작업반장에게 맞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생까지 때린 것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무인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자기도 중국 가는데 같이가자고 그래서 원래는 가지 말라했죠 아버지도 가지말라할 거라 내동생도 당시 같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일을 하러 안 나간다 해서 내 동생을 때려놔서 할 수 없이... 공장에 못 들어가고 할 수 없이 여기로 들어왔어요(사례 87).

사례 43도 단련대에 잡혀가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을 선택했다. 양강도 혜산이 고향이었던 사례 43은 집 앞이 바로 중국이라 밀수를 하며 살았다. 중국에 가면 좋다는 것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알게 되었다.

집이 압록강 옆이라 눈앞에 중국이 잘 보여요. 밀수를 하면서 살았어요. 보고 느끼는 게 저쪽에 가면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중국을 보고 자랐으니까요. 조선은 일을 안 하면 교양 단련대를 보내는데 19살 때 아버지, 엄마가 모두 사망하고 일할 형편은 못되는데 일 안하면 또 단련대 보내니까...(사례 43).

간호전공으로 교원대를 다녔지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가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며 근근이 먹고 살다 밀수를 알고 중국에 오가기 시작했다. 그러다 일이 잘못되어 단련대에 잡혀갈 위기에 처했다. 중국을 오가며 들은 이야기로 중국에 가면 결혼으로 팔려가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단련대에 잡혀 가는 것보다 오히려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21살의 나이에 자유를 찾아 건넌 압록강이었다.

단련대 잡혀가는 것도 겁나니까. 중국에 오면 결혼하는 줄은 알았어요. 그래도 자유니까... 내 하고 싶은 것 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중국 와서 스물 한 살이었는데 보름 만에 지금 남편 만나서 결혼했어요(사례 43).

3) 장사하다 망해서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여성들은 가정생활과 경제적 활동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장마당으로 내몰렸으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예외가 있었으나 북한 내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출산과 양육은 물론이고 가족의 생계유지까지 온전히 여성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었다(김석향·박민주, 2016: 112). 사례 8의 고향은 혜산으로, 금과 동을 밀수하며 큰 장사를 했다. 23살의 나이에 압록강을 건넌 사례 8은 젊은 나이에 큰 장사를 하다 하루아침에 망해서 엄청난 빚을 졌다.

고등중학교 졸업하고 장사질 했어요. 금속장사 했어요. 동도 넘겨보고, 금도 넘기고... 다시다(?)란 그런 금속이 있었어요. 그것도 많이 해봤어요. 새까맣게 생긴 거 있어요. 그러다 망했어요.

장사할 밑천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밀수를 한 사례8은 그 날도金を 구하러 갔다가 운명적인 사건을 겪는다. 함께 金を 사러간 사람이 사례 8에게 돈을 꾸 달라고 요구했다. 더 많은 金を 사면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례8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사례 8은 그 때 왜 그랬는지, 자신의 욕심이 과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후회도 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은 벌어지고 난 뒤였다. 돈을 꾸지 못한 사람은 혜산역에 도착하자마자 보안원에게 사례 8을 신고했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장사할 때 돈을 꾸달라는 거 안 꾸렸어요. 내 목적은 내가 더 많이 사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안 꾸주고 내 욕심대로 샀는데, 그 아주마니가 혜산역전에 내려서 안전원한테 신고한 거예요. 金を 옷 안에 넣었는데 잡혀 다 빼졌죠. 빼기고 나니까 그 돈이 다 내 돈도 아니고,.. 빌려서 한 돈도 있고 하니까 물려주자니 물려줄

수가 없어, 빚을 물려 줄 자체가 못 되니까(사례 8).

사례 8이 그 때 보안원에게 뺏긴 돈만 북한돈으로 5만원 정도였다. 당시 쌀 1kg이 100원, 계란 한 개가 10원 정도였다. 뺏긴 돈은 5만원 이지만 물건까지 다 합치면 14만원이라는 큰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몰려들었다. 방법은 중국으로 돈을 벌러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 때 돈이 우리 집 돈은 계산하지 않고 남의 집 돈 꾸게 5만원인가 됐어요. 입쌀 한 kg가 백 원씩, 달걀 하나가 10원씩 할 때거든요. 망하기는 14만원을 망했는데 꾸 돈이 5만원 정도였어요. 돈은 내가 꿏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돈 내라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난 몰라 내가 꿏나 난 어디서 꾸지 몰라 이렇게 굳히니까는 할 수 없이 중국가야 된다 그러더라구요. 내 가서 돈벌어가지고 오겠으니까 기다리라고(사례 8)

집으로 찾아와 엄마까지 괴롭히는 빚쟁이들 때문에 사례8은 달리 대안이 없었다.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그 길로 중국행을 선택했다. 자기발로 직접 브로커를 찾아갔다. 브로커의 말이 '설령 중국 남자에게 결혼으로 팔려가도 도망쳐 나오면 된다'고 했다. 빚쟁이들에게 잡혀 봉변을 당하느니 중국에 가서 돈 벌어서 돌아오면 될 것이라 결심했다.

꾸 줄 정도가 못 됐지. 난 중국으로 넘어와서 남편, 남자를 얻어 살아도 자식 놓는다 그 말은 못 듣고, 가서 돈벌이 하고, 많이 벌면 넘어올 수 있다 이 소리 듣고서. 돈만 벌면

다시 넘어 올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하길래. 아줌마 한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 시집가면 그 집 가서 남편을 잘 열래서 돈을 가지고 도망쳐 오면 된다.’ 인신매매꾼을 직접 찾아갔어요. 그 사람, 그 여자가 나를 넘겨줘서 왔는데, 오히려 말이 서로 다르고 하니까 배우기가 힘들었는데. 그렇게 말 듣고서 넘어왔는데...(사례 8).

4) 중국에 가면 결혼 하는 줄 알고 온 사례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국경을 건넌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중국에 가면 중국 남자에게 팔려서 시집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강을 건넌 사람들이 있다. 그녀들이 처한 환경에서 중국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중국에 와서 결혼을 각오하고 온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19는 국경을 넘을 때 강 앞에서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기억했다. 강을 건널 때 물살의 저항을 받지 않기 위해 보통은 바지를 벗고 강에 들어선다. 브로커와 함께 강을 건너는데 브로커가 남자였다.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도 여자로서 옷을 벗은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다. 팔려 가면 낯선 중국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하는 상황을 다 알고 있지만 여자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다.

다 알면서도 팔려왔지. 강 건널려고 하니까 남자 하나 있고 40살 정도된 아주마이가 있더라고... 나보고 바지 벗고 가라는 데 안 벗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남자앞에서 옷 벗고 싶지 않더라고요. 청바지 입으니 영 다리가 무겁더라 말입

니다. 브로커 남자는 팬티만 딱 입고 장화 신고 건너더라구요. 그 아주마이가 40살이니까 힘이 딸리니까 걸음이 안되서 막 악쓰고 그러더라구. 바지를 입었으니까 물이 들어가 무거워서 힘들었지. 강 넘으니까 중국에 왔구나. 이제 반역자가 되겠구나(사례 19).

그 때만 해도 강을 건너서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라 스스로 생각했다. 강은 건넌 것에 대해 죄책감도 들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돌아갈 길이라는 생각을 놓지 않았다. 숨만 있으면 반드시 간다는 생각으로 버텼다.

처음에 넘을 때 일하는 줄 알면서 왔지 그러면서도 외국 길인데 산에 들어가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첫째는 죄스러움 두 번째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난 간다. 무조건 간다. 숨만 있으면 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사례 19).

사례 80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고 새엄마와 함께 지냈다. 새엄마와 많이 다투게 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졌다. 준의사로 일하면서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중국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의사로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중국에 와서 한번도 의사와 관련한 일을 해 보지는 못했다. “꿈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하염없이 눈물만 떨구었다.

그러면서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인터넷을 통해 북한의 00병원을 소개하는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다. 병원을 소개하는 영상에 나온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

같은 병원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었다.

인터넷으로 구해서 봤어요. 이 사진에 보면 내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예요. 보니까 다 내 알만한 사람들이니 너무 흥분 되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떨 때는 흰 옷, 병원에서 입는 흰 가운 입은 사람보고 아 나도 저 옷이 있는데 하며 부러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혈압계 하나 샀습니다. 못 쓰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을라고...(사례 80).

3년 전에 중국에 온 사례 62는 26살의 나이에 6만 위엔에 팔려왔다. 같은 마을에 사는 탈북여성이 길게는 중국에 온지 20년째가 되어가니 이제 3년차인 사례 62는 그 동네에서 딸처럼, 막내처럼 생활하고 있었다. 사례 62 역시 중국에 가면 결혼하는지 알고 길을 떠났다. 그녀가 중국행을 선택한 이유는 교화소에 잡혀갈 상황 때문이었다.

조선에서 장사를 하다 안전원들에게 잡혀 교화소에 가게 되었어요. 교화소에서 18일 있었어요. 해산에서 떼먹히고 빗꾼들이 달려들어서 중국으로 왔어요(사례 62).

사례 76 역시 중국에 가면 결혼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에서 굶주림으로 가족들이 죽어갈 때 가족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은 자신이 홀로 팔려가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은 시집보내는 거 모르고 온다 하는데 자신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 어머니하고 큰 언니가 장사 갔을 때 영양가루가 있었어

요. 막내 동생하고 둘째 언니랑 셋이서 집에서 그거 먹으면서 지냈어요. 한 숟갈 반씩 한 번씩 먹기도 하고요. 그때 굶어서 누워 있으면 옆집 사람이 와서 들여다보는데 참 바쁘게 살았어요. 근데 이모가 그 연변 쪽에 가겠냐 묻더라구요(사례 72).

5) 엄마를 따라 나선 길

어릴 때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엄마를 따라 중국에 나온 사례도 있었다.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 아무 것도 모른 채 엄마 손에 이끌려 중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다. 사례 27이 국경을 건넌 것은 그녀의 나이 15살 때였다. 엄마 손에 이끌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강을 건넜다. 엄마는 그때 중국에 시집간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강을 건너오자마자 브로커는 딸과 함께는 시집갈 수 없으니 딸을 따로 팔아야 한다고 했다. 엄마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 각자 다른 곳으로 팔려가는 것이었다.

1년 넘도록 그때 가서도 엄마가 내 못 보겠다는 생각에 밥도 안 먹고 울고 데려다 달라고 떼도 쓰고 했는데 그 집은 만 위엔 주고 산거니까요. 처음에 내 알선해주는 사람들이 나를 18살로 속이고 그때 키가 작은 편이 아니었어요. 지금 남편이 26살인데 23살로 속여가지고 차이가 거의 10살 넘었어요(사례 27).

사례 47은 엄마를 따라 중국에 왔다가 공안에 잡혀 복송 되었다. 그리고 다시 홀로 그 길을 도망쳐 나왔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이었지만 자신을 버리고 간 엄마가 지금도 야속하고 원망스러웠다. 자신이 어릴 때 엄마 없이 자란 아픔을 알기에 아이에게 자식을 버린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다. 엄마가 되기 위해 엄마를 버렸다.

11살 때 엄마랑 같이 왔어요. 평안남도 순천이 고향인데 산골이라 그 지역에서 중국에 온 경우는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엄마랑 같이 중국에 왔다가 잡혀서 온성으로 북송되었어요. 15살 때 또 잡혀나갔다가 17살에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요(사례 47).

I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00명의 사례 가운데 중국으로 건너오는 과정에서 비자발적 상황은 77명, 자발적 상황은 23명이었다. 이 부분은 통계상의 수치보다는 개별 사례의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는 게 더욱 중요하다. 즉, 자발적 상황이 23명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선택이 중국행을 원해서 온 결과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내몰린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자발적 상황으로 중국에 가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강제 결혼 여부는 인지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장사를 위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자 단련대로 보낸다는 통보를 받고 그 길로 도망쳐 중국에 나온 경우다. 이 경우 브로커를 직접 찾아가 중국에 보내달라고 스스로 찾아간 길이지만, 중국에 잠시 갔다가 돌아오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결국

자발적 선택 가운데 ‘중국에 가면 인신매매로 강제 결혼이나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돌아오고 싶으면 공안에 체포되어 복송되는 경우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중국행을 선택했다면 엄밀히 말해 이들은 모두 비자발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자발적 선택 23명 중 중국에 가면 강제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온 대상자는 11명이었다. 본인의 선택 여부에 따라 자발과 비자발적 상황으로 구분하기는 하지만, 자발적 선택이라 하더라도 중국에 넘어오면 강제결혼이나 유흥업소 등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세계화 시대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라 이주는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 경제적 이유로 이주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주와 인신매매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주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자발적 선택의 여부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 거주 탈북여성들의 경우 납치와 유인 등 강제적 방식을 통한 인신매매를 당한다. 그런데 스스로 중국행을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편적 이주 현상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다. 중국에서 탈북여성들은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비록 본인 스스로 중국행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본 글에서는 그들의 이주 배경을 인신매매로 간주한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에서 생활하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 해도 자율적 선택에 의해 돌아갈 수가 없으며, 강제 복송되면 정치적 박해를 당하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에서 자신 스스로 중국행을 선택했다고 해도 선택의 동기가 정치적, 경제적 인권침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북여성이 중국에 오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발적 선택을 노동이나 결혼이주의 목적으로 간주하여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내 입국한 탈북민이 3만여 명을 넘어섰고 이 중 70%가 여성

이다. 이 여성들 가운데는 중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한국에 입국한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런데 더욱 주목할 점은 아직 까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여성의 수 역시 다수라는 점이다. 그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그녀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탈북여성들의 중국 내 거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그녀들의 중국에서의 경험과 삶이 국내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국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낳은 경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해도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로서 중국에 두고 온 자녀를 생각하면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과 죄책감을 받는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곧 안정적 정착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이 된다. 통일과 통합이라는 장기적 관점과 국내에 입국한 탈북여성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라는 점에서 중국내 탈북자녀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강동완, 2017).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중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그 자녀의 지원에 관한 실질적 보호 대책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중국정부에 북한이탈주민 인권과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을 촉구함과 더불어, 보다 직접적으로는 중국 정부와 양자적 협상과 요구를 통한 해결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이춘호·전득안, 2015: 161).

현재 중국에 거주(체류)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은 중국에서 법제도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언제 북송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녀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엇보다 그녀들이 탈

북 하여 중국에 갈 수 밖에 없는 북한 내부의 경제적, 환경적 상황에 대한 변화도 요구된다. 북한인권 개선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단기적이며 시급한 해결과제는 중국 내 탈북여성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해결의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 접수: 4월 17일 ■ 심사: 4월 23일 ■ 채택: 5월 11일

참 고 문 헌

- 강동완. 2017. “중국 현지 거주 탈북여성의 생활 실태 및 지원 방안.” 『북한학보』, 제42집 1호.
- 국가인권위원회. 2012.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복수 외. 2014. 『21세기디아스포라 북한이탈주민』.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김석향·박민주. 2016. “북한 내 재생산 영역의 사회구조와 여성의 실천: 임신, 출산 관련 법제와 개인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33집 1호.
- 김성경. 2012. “경험되는 북중 경계지역과 이동경로_북한이탈주민의 경계넘기와 초국적 민족 공간의 경계 확장.” 『공간과 사회』 제12권 22호.
- 김태현 외. 2003.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서울: 도서출판 하우.
- 김화순. 2017. “직행 탈북이주자의 노동이동과 탈북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 남북하나재단. 2016.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문숙재·김지희·이명근. 2000. “북한 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중국 연변 지역의 탈북 여성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5호.
- 안태운. 2015. “분단체제하 북한 여성의 삶과 탈북의 생존전략.” 세계북한학학술대회. 서울. 2015년 10월 13~14일.
- 윤여상. 2003. “탈북자 문제의 국제적 이슈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대한정치학회보』 제11권 1호.
- 윤여상 외. 2013.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과 인권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 임순희. 2006. “식량난이 북한여성에게 미친 영향.” 북한연구학회편, 『북한의 여성과 가족』 서울: 경인문화사.
- 이가연. 2013. “탈북자 발생요인과 국제협력 방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영 외. 2015. “중국출생 무국적 자녀와 동반입국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52호.
- 이금순. 2003. “탈북자 발생배경과 향후전망.”(일본 지역연구센터 세미나 발표논문, 2003).
- 이원웅. 2003. “재외탈북자 문제: 현황과 정책제언.”(북한인권난민문제 아카데미 강의로, 2003).

- 이춘호·전득안. 2015.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정착가정 자녀의 생활 실태 연구.” 『평화학연구』 제16권 4호.
- 이화진. 2014. “이주공간의 변화에 따른 탈북여성의 모성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한국여성학』. 30집, 3호.
- 이혜경·정기선 외.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0권 5호.
- 전영선. 2016. 『북한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 서울: 경진출판.
- 정인섭 외. 2011.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서울: 경인문화사.
- 정정애·손영철·이정화. 2013.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와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 최순미·강동완. 2017.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책적 욕구와 적응 지원방안.” 『통일문제연구』 제21권 1호, 181.
- 한미라. 2015. “탈북여성의 초국가적 어머니 경험.” 『다문화와 평화』 제9권 2호.

ABSTRACT

Actual Life of and Support Plans for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China

Kang, Dong Wan
(Prof., Dong-A University)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actual life and characteristics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China. More than 70% of North Korean defectors that entered South Korea are female, and over 80% of them had an experience of living in China. An investigation into the environment in which they lived in China will offer basic data about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supported settlement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that entered South Korea. The investigator flew to China and interviewed 100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China, making a visit to the places where they lived and capturing the actual state of their life and their daily life. As far as they were concerned, living in China meant that they got married in China and lived there at least for a year rather than staying there for a moment while waiting for their trip to South Korea after they defected from North Korea. It was in the early 2000s that the issues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started to be in the spotlight in China. It has been about 20 years since then, but they still live in China with no changes to the Chinese government's position about their enforced repatriation to North Korea and the actual state of their life in China.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life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China for many years and the

actual state of their life and propose policy measures to address them.

Key words: female North Korean defector, North Korean defector, enforced repatriation to North Korea, human right in North Korea, North Korean refugee